

소재 고갈에 넘치는 리메이크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지휘자 차세음(이영애 분), 그리고 다정한 매력의 농인 화가 차진우(정우성).

각기 다른 드라마를 이끄는 두 주인공의 공통점은 둘 다 원작인 외국 드라마 속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24일 방송가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드라마들이 속속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 9일 방영을 시작한 tvN '마에스트라'는 2018년 방송된 프랑스 드라마 '필하모니아'가 원작이다. 전 세계 오케스트라 지휘자 중 5%뿐이라는 여성 지휘자 마에스트라를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주인공 차세음은 원작의 헬렌 바리체(마리소피 페르단)와 비슷한 설정으로 등장한다. 그는 뜨거운 카리스마와 대비되는 섬세한 해석으로 연주자와 청중을 쥐락펴락한다. 짧은 차세음은 검은 정장만큼 틀에 박힌 클래식판을 뒤집는 인물이다.

한국 정서에 맞춰 리메이크했다는 '마에스트라'는 단원들을 독하게 몰아세우기로 유명한 차세음에 대한 단원들의 반대를 원작보다 간접적으로 풀어냈다.

원작에서 단원들은 헬렌을 꿀방 먹이기 위해 그의 첫 지휘 때 악보를 넘기지 못하게 불여버린다. '마에스트라' 속 단원들은 환영인사라고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을 가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메인 원본 사운드트랙(OST)을 연주하는 우회적 방식을 택한다.

현재 방송 중인 ENA '사랑한다고 말해줘'

'마에스트라'·'사랑한다고...' 등 외국 드라마 한국 정서 맞게 각색 드라마 흥행 보증·비교 재미 제작사들 지적재산 경쟁 치열

도 해외 드라마를 각색한 작품이다. 손으로 말하는 농인 화가 차진우(정우성)와 마음으로 듣는 배우 지망생 정모은(신현빈)의 소리 없는 사랑을 다룬 클래식 멜로극이다.

1995년 일본 TBS에서 방송된 동명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데, 정우성이 원작 드라마의 리메이크 판권을 구매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정우성은 앞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원작 드라마를 보는데 청각장애가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올 때 심장을 두들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며 "드라마화(리메이크)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작품인데 긴 시간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작의 잔잔하고 애뜻한 감성을 살린 '사랑한다고 말해줘'는 주인공들의 차분한 감정선을 세심하게 그려낸다.

특히 정우성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차진우의 마음을 대사 대신 눈빛으로 표현해내며 몰입감을 자아낸다는 호평을 받는다.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남녀가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춰서게 되는 장면들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원작의 흔적을 여기 저기에 숨은그림찾기나 퍼즐처럼 심어놔서 원작 팬들에게는 비교하는 쓸쓸한 재미가 있다", "원작보다 긴 호흡으로 담아낸 장면들이 더 깊은 여운을 남긴다", "볼수록 각 작품의 개성이 뚜렷하게 와닿는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해외 드라마를 국내 정서에 맞게끔 리메이크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시청률 28.4%로 지금까지 JTBC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세계' (2020)는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를 리메이크한 작품이고, 높은 작품성으로 지금껏 회자하는 드라마 '마더' (2018), '영글' (2022) 등도 모두 리메이크작이다.

특히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려는 제작자들의 '지적재산(IP)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소설과 웹툰, 웹소설뿐 아니라 기존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내달 26일 처음 방송되는 SBS '재벌X형사'는 국내 최초 러시아 드라마 리메이크작이다. 2014년 방송됐던 'Mazhor(실버스폰)'을 원작으로 한다.

오리지널 IP를 창출하는 대신 웹툰과 소설, 해외 드라마 등 기존 IP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 겸 드라마 평론가는 "해외 드라마 리메이크가 활발해진 이유는 오리지널 드라마 극본이 부족해졌고, 그러다 보니 또다시 다른 원작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BTS 전원 입대에 발표곡 '역주행'

'봄날' 등 MV 조회 수 급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전원이 군 공백기에 돌입하면서 이들이 과거 발표한 곡들이 차트 역주행을 펼치며 재조명받고 있다.

25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봄날' (2017), '아웃트로: 티어' (2018), 데뷔곡 '노 모어 드림' (2013)은 멤버들이 입대한 직후인 이달 13~15일 전 세계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차례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세 곡은 미국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도 처음 진입했다. 또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의 타이틀곡 '옛 투 컵' (2022) 뮤직비디오

오는 이달 들어 유튜브 조회 수가 전월 대비 20%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 19일 유튜브 조회 수 2억 건을 넘겼다.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의 기존 곡들의 뮤직비디오 조회 수 역시 이달 10일 기점으로 상승세를 탔다"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옛 투 컵'의 가사처럼 전 세계 팬들의 열원이 하나로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팀 활동 재개를 약속한 2025년까지 입대 전 준비한 콘텐츠를 하나둘 공개하며 팬들을 달래줄 계획이다. 앞서 지민의 팬송 '클로저 댄 디스'와 디즈니+ 다큐멘터리 '방탄소년단 모뉴먼트: 비온드 더 스타'가 공개됐다.

/연합뉴스

서태지 "벌써 1년... 내년엔 더 큰 꿈꿔요"

SNS에 근황 메시지

'문화 대통령' 서태지(사진)가 "벌써 1년이 휩 지나갔다. 나이도 훌 먹었다"고 24일 근황을 소개했다.

서태지는 "2023년을 꼭 돌아보니 비교적 소소한 일상만 있었던 것 같다"며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이 적었다.

그는 먼저 "작년에 쓴 글이 조금 다운되어 팔로(팬덤 애칭)들에게 괜한 걱정을 하게 한 것 같다"며 "여러분이 걱정할 만한 일이 있던 건 아니었다"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표현하기 조심스럽지만, 부모님들과 조금 더 가깝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태지는 "올해는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며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인지 여기저기가... 그리고 내 미모에도 노화가 (왔



다)"라고 농담도 던졌다.

그는 "특별한 계획 없이 지나다 보니 내년엔 더 많은 꿈을 쫓아겠다는 의지가 생겼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안겼다.

서태지는 3인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을 결성하고 1992년 본격적인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1집 타이틀곡 '난 알아요'를 시작으로 수년간 한국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키다 1996년 은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1박 2일' 두 번째 KBS 연예대상



KBS 2TV '1박 2일' 팀(사진)이 두 번째 KBS 연예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1박 2일' 팀은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3 KBS 연예대상'에서 김숙, 신동엽, 전현무, 류수영, 박진영, 이찬수 등을 제치고 대상을 받았다.

'1박 2일' 팀은 올해로 16번째 국내 아름다운 풍경을 전하고, 멤버들 케미(호흡)로 웃음을 자아낸 공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1년 KBS연예대상 대상을 받은 지 12년 만이다.

시청자 투표로 선정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상에는 '불후의 명곡'이 뽑혔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